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전문 인력 양성과정 후기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진행한 전문 인력 양성과정은 2018년 기준 4번째 시행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경 대학원생 대상으로 서류를 모집합니다. 처음에 전문 인력 양성과정에 지원할 때는 교수님의 권유로 지원을 하였지만, 지원 서류를 작성하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한없이 작은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맞게 교수님은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아닌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지원서를 원하셨고 그게 맞게 작성했던 것이 합격의 확률을 조금은 높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정은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암호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측면도 존재하지만, 암호 기술에 관심이 있어 하는 각 학교의 학생들을 골고루 뽑아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을 매 시간 강조 하셨습니다. 따라서 뽑힌 인원들을 보면 총 15명의 학생들이었으며, 각 학교별로 1명(연구실이 많은 학교의 경우 2018년의 경우 최대 2명까지 모집)씩 합격하였습니다. 암호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매우 좋은 학교에 재학 중이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지원 당시에는 붙을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다른 학우 분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여 후년에도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 과정은 3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한 달에 한 번씩 대전에 위치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혹은 강남의 스터디 카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수업시간은 14시부터 18시까지이며, 수업이 끝나면 마감기한이 한달짜리 과제가 주어집니다. 강의 해 주시는 교수님은 매 시간마다 다릅니다. 한 예로 첫 시간에 진행했던 수업은 블록암호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ES에서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직원이신 박사님께서 설계하신 조금 변형한 AES를 학생들 스스로 구현하고, 변형된 AES에서 암호문을 찾는 과제를 내 주었습니다. 사실 다른 학생들의 경우 학부 때도 암호쪽을 전공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과제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진 않았지만, 저의 경우 학부때는 주로 웹(풀스택) 개발을 했었어서 AES를 구현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지만, 위에서도 설명했듯 암호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것이 주목적인 과정에서 과제를 진행할 때 서로 경쟁을 한 다기 보다 서로서로 알려주며 해결해 다른 학생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해결해 나갔습니다.

스터디가 끝나고 나면 매월을 아니지만 2-3달에 한번 씩은 회식을 했습니다. 그때 연구소 직원 분들과 다른 대학원생들과 밥과 술을 먹으며, 연구에 관한 얘기를 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저의 경우 고려대, 국민대, 서울과학기술대, 부산대, 한양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다른 사람들보다 친하게 지냈고, 공식적인 회식이 있는 달 외에 저희끼리 따로 회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양성과정이 끝난 후에도 암호 학회나 다른 일정으로 어디 학교를 가면 위 인원들 중 한명 이상은 꼭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암호 쪽 사람들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에 나가서 만나는 것이 아닌 학생 때 만나 문제를 해결하며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위 과정에 생각이 있으신 주저 말고 지원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